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1호 【부제 제25374호】 주제 105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인민보안성 내무군대장 최부일 동지, 인민보안성 조직부국장 내무군장장 림종환 동지를 비롯한 혁명단위와 농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과일대풍을 이룩한 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8월의 뜨거운 폭양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꼭 1년만에 자기들의 일머를 또다시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맞이한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8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파수에서도 세계적인 최권을 쥐려는 만만한 야심을 안고 농장을 세계급지의 청춘과원, 인민의 과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진시킬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말씀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보안



안한안 만져보시며 땅이 꺼지게 달했다고, 포도송이같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규모있게 똑똑 뻗어간 과수밭에서 심심하게 자라는 과일나무까지 마다 사과알들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일철만, 사과 철만이라고 하시면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속에서도 매년에 없는 과일대풍이 이룩된것은 나라가 후한 창조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 생겨 처음 보는 과일대풍을 안아올 수 있는것은 인민보안성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이 기세로 나간다면 가까운 년간에 수만t의 과일을 생산해낼 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과수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금처럼 이악하게 투쟁하면 얼마든지 눈이 세운 과일생산목표도 정명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성과 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50여 정보의 파수밭을 새로 조성하고 수백 세대의 살림집들을 건설한것을 비롯하여 당에서 준 전무적과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함으로써 불과 1년사이에 농장의 면모를 보다 훌륭히 일신시켰을뿐만아니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풍요한 과일작황을 마련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지구전경사판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전방대에 오르시어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팔간대 없이 펼쳐진 파수의 바다를 바라보시며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남기신 애국유산, 애민유산의 하나이라고, 이곳을 지나다닐 때면 장군님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풍족히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며 팔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넉넉을 언제나 잊지 말고 해마다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는것으로써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올해 당이 제시한 과일생산목표를 정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을뿐만아니라 알알이 플라 수확한 첫물사과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는데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과일향기가 가득 넘쳐나는 농장의 파수밭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파수밭에 들어서시며 나무마다 가지가 휘도록 무수히 달린 사과알들을 한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동강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동강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인민보안상 내무군대장 최부일동지, 인민보안성 조직부 국장 내무군중장 림종환동지를 비롯한 해당단위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대동강 돼지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2011년에 일떠선 규모가 큰 축산물생산기지이다.



뜻을 심장마디에 새겨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공장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1년 10월 공장을 다녀가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훌륭히 꾸리었으며 돼지고기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도록 물질기술적토대를 든든히 다져놓았을뿐만아니라 현대적인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도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도록 과학적인 축산체계를 확립하며 파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사업

을 짜고들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3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대로 정보당 50%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 생산성이 높고 맛이 좋은 과일종자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우량품종의 과일모색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문제, 파수와 축산, 축산과 파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철저히 세워 과수원의 지력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문제, 과수업의 세계적인 발전방향에 맞게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할데 대한 문제, 전국의 과수농장들과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문제 등 농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파이나 무술과 어울리게 들어앉은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환한 미소속에 보고

도 보시며 볼수록 멋있고 호모하다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사회주의선경, 사회주의무용도원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최한한 광경은 사회주의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참모습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한그루의 과일나무를 가꾸어도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인민보안성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꾼들, 근로자들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안으시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불멸의 명도자욱을 새기시며 자기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대례같은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리지 못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관철할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시정지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동강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새로 건설된 대동강돼지공장을 찾으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종업원들이 높은 생산성과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가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통합조종실, 종축호동, 육성호동, 비육호동, 고기가공장, 유기질복합비료 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 돼지공장에서 축산물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통합조종제를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축산에서 기본인 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량품종육종체제를 확립해놓고 새끼돼지생산을 정상화하고있으며 돼지고기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도록 사료보장 및 수의방역대책도 잘 세워놓았다고 하시였다.

가장 합리적인 먹이치방을 찾아내고 사료단위를 극력 낮추기 위한 투쟁을 이악하게 벌인 결과 배월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육호동들마다에서 살현 돼지들이 옥실거리고있는 모습이 볼만 하고 고

기가공장에 그럭히 쌓여있는 고기가 공품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하시였다.

돼지배설물을 리용하여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들도 그럭히 갖추어놓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유기질복합비료를 원만히 보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곳곳마다에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이 맥박치는 힘있는 구조들이 나붙어있는데 이것은 공장에서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 돼지공장에서 당의 의도대로 돼지고기생산의 과학화, 질약화를 실현하고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확립해놓았다고 만족하시면서 해당부분의 일군들을 참판시켜 이 공장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돼지공장에서 우량품종의 돼지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기 위한 사업방법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위생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돼지고기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여 가까운 년간에 1,000t의 돼지고기를 생산할데 대한 문제, 고기가공품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고기가공품의 가치수를 높이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데 대한 문제, 유기질복합비료

생산량을 더욱 늘일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돼지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축산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대동강돼지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품소 자기들의 일머리에 찾아오시여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